

上海의 韓人社會와 醫學·健康

孫科志

復旦大學 歷史系

Korean Society in Shanghai and Their Medicine and Health Care

Sun Kezhi

Department of History of Fudan University

After the opening of the Korean port, the influx of Koreans to Shanghai was expanded and led to form their society. Among these Koreans many dealt in ginseng peddling, which proportion was big enough to influence Shanghai ginseng market. There were also Koreans dealing in pharmaceuticals.

Korea Red Cross contributed greatly in the propagation of medical knowledge and health care in Shanghai Korean society. Korean doctors opened their own clinics in the area of Korean inhabitants. But overall size of clinics and the medical apparatus were minimal. By this reason many Koreans utilized general hospitals founded by foreigners and Chinese.

Keywords : Shanghai Korean society; medicine; ginseng peddler; Korean Red Cross

I. 上海의 韓人 人蔘商

초기에 上海에 온 韓人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째, 정부 관리로 이들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上海에 출장을 온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의 정치 상황이 변하자 上海로 온 경우이다. 둘째,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로 그들은 학업을 위해 上海에 왔다. 셋째, 개항 이후 상업을 목적으로 上海에 온 상인들이다. 하지만 이들 韓人 중에서 장기간 上海에 체류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초기에 上海에 온 韓人 가운데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비록 中·朝간에 이른 시기부터 무역 거래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변경 지역에서 이루어졌었고, 중국 내지까지 진출하여 무역을 행한 韓人은 많지 않았었다. 그러나 한국의 개항 이후 韓人 가운데 중국 내지에 진입하여 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그들이 진출한 지역도 매우 넓어서 이전 시대에는 닿지 않았던 甘肅·陝西·湖北·四川·貴州·雲南 등 지역까지 발자취를 남겼다. 그들은 통상 포목·소가죽·인삼 등을 가지고 와서 무역하였고,¹⁾ 몇몇 상인들은 上海에서 서양 물품을 구매하여 귀국하여 판매하기도 하였다. 장기간 上海를 왕래하면서 무역에 종사했던 韓人 李炳龍은 프랑스 상인 亨達利(양리)로부터 1,100여 원 상당의 시계를 구매하여 국내로 돌아와 판매하였다.²⁾ 당시 한국 정부는 이들 상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인들의 왕래가 비교적 많은 天津·上海 등지에 商務委員을 파

■ 교신저자 ▶ Sun Kezhi, Department of History of Fudan University, 220 Handan Road, Shanghai, China, 200433

Tel 0086-21-55665037 E-mail ssuny@fudan.edu.cn

■ 번역 ▶ 이민호(한국한의학연구원)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편, 『舊韓國外交文書』 8,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0:40-41, 266, 711-718.

2) 臺北中研院近代史研究所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臺北, 1972: 520.

견하였다.³⁾ 上海는 지리적 환경이 좋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 오는 한국 상인의 수가 부단히 증가하였다. 1884년 상인 黃熙鳳·金福·朴崙圭 등이 장사하러 上海에 왔으며,⁴⁾ 이후 상인들이 계속해서 上海로 몰려들었다. 당시 上海에 유학하고 있던 尹致昊는 上海에 한국 상인이 많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1885년 9월 10일 尹致昊는 上海의 四馬路를 걷는데 아주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 3명의 한국 상인을 만날 수 있었다.⁵⁾

초기의 上海 韓人 중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역시 상인들이었다. 그들은 여러 경로는 통해 上海의 개항 이후의 발전상을 이해하였는데, 특히 상업과 무역 방면에서 두드러졌다. 그들은 중국 최대의 무역항이자 변화한 상업도시인 上海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업의 기회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왔던 것이다. 초기에 上海에 왔던 한국 상인들 중에서는 인삼 상인과 비단 상인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특히 인삼 상인은 上海의 인삼 판매와 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1909년 仁川을 통해 수출된 인삼의 대부분은 上海에서 수입한 것으로 그 해 3월 직접 수입해 上海에 들여온 인삼은 12,000斤에 달하였으며, 만약 烟臺를 거쳐 上海로 들여온 것까지 합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⁶⁾ 이러한 인삼수입의 대부분은 華商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上海 韓商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근대의 上海 거리 곳곳에서는 蔘藥店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기타 도시와 분명 다른 점이고, 이것 또한 韓人 인삼상인이 上海에서 활동한 것과 관계가 있다. 당시 上海의 韓人에게 가장 간단한 생계 수단 가운데 하나는 인삼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국내에서 인삼을 가지고 上海에 와 크고 작은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판매할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수의 韓인들이 처음 上海에 와서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치며 인삼을 판매하였다. 尹奉吉도 靑

島에서 上海로 온 후에 거리에서 소리치며 인삼을 판매했었다(Table 1).

Table 1. 1910년 이전 상해 거주 한인의 신분⁷⁾

직업	세대주(남)	가족		합계
		남	여	
학생	4	-	-	4
포목상	6	2	2	10
음식점	1	-	-	1
상점원	1	-	2	3
잡화행상	2	-	-	2
식당종업원	1	3	1	5
전차회사직원	2	-	-	2
인삼행상	3	-	-	3
통역	1	-	-	1
회사원	1	-	-	1
약행상	2	1	1	4
무직	12	2	-	14
합계	36	8	6	50

인삼 판매 외에 韓人들은 製藥業에 발을 들여놓기도 하였다. 金亨植은 1935년 上海에서 佛慈製藥廠을 설립하였는데, 이 製藥廠은 日本이 中國을 침략한 기간 동안에 급격히 확장되어 500개의 분점을 두기도 하였는데, 항전 승리 후에도 200개의 분점이 남아 있었다.⁸⁾

II. 大韓赤十字會

근대의 上海 韓人社會에는 무수한 단체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들 단체 중에서 大韓赤十字會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大韓赤十字會는 1919년 7월 安昌浩와 의사 李喜徹, 金聖謙 등 수 십 명이 발기하여 조직하였는데,⁹⁾ 회장에는 李喜徹이 맡고, 徐載弼은 名譽總裁에, 李承晚, 李東輝, 安昌浩, 文昌范 등은 顧問으로 임명되었다.¹⁰⁾ 大韓赤十字會는 성립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日本赤十字會의 ‘無道無義의 罪惡’을 성토했으며, 大韓赤十字會와 日本赤十字會는 어떠한 예측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언문 중에서 大韓赤十字會는 國際赤十字會 연맹에 가입을 청원

3)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편, 『關於送還滯入四川的韓國國民, 전개서 8(淸案1), pp.41, 107, 293.

1884년 6월 한국정부는 청정부로부터 白銀 2,000냥을 빌려 天津에 한국공관을 건립하고 南廷哲을 초대 駐天津 商務大員으로 파견하였다가 후에 朴齊純을 駐天津 韓國 商務委員으로 바꿔 파견하였다. 『舊韓國外交文書』 8 중에는 한국의 駐天津 商務委員과 청정부의 관련 부처간에 오간 문서가 적지 않은데, 이는 한국정부가 天津에 商務委員을 파견했음이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나 이들 사료 중에서 언급되고 있는 上海 주재 商務委員은 파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 사료 외에 『舊韓國外交文書』 중에 上海 商務委員에 관한 사료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개항 후의 한국정부는 上海에 商務委員 파견을 계획하였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 『淸發給黃熙鳳等前往上海貿易的執照』, 상계서, p.153.

5) 국사편찬위원회 편, 『尹致昊日記』 1, 탐구당, 1950:173.

6) 『淸韓貿易并ニ上海ノ經濟地位』, 『貿易月報』 13(1909년 7월), 여강출판사 영인, 198?, 부록 p.27.

7) 日本外務省,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3, 高麗書林 影印, 1989: 9-15.

8) 『上海に於ける九千同胞の活躍を見』, 『三千里』, 1943년 3월호.

9) 『我赤十字會出現』, 『獨立新聞』, 1919년 9월 25일.

10) 『赤十字委員會』, 『獨立新聞』, 1919년 9월 23일.

하면서 “전체 국민이 신성한 독립전쟁을 위해 피를 흘리며 희생하는 오늘날 동포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들 赤十字會의 가장 절박한 임무이다. 우리들은 자유정신으로 비참한 경지에 처한 민중을 구제하고, 성심 협력하여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¹¹⁾ 이러한 선언문을 통해 大韓赤十字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독립운동에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大韓赤十字會를 정치단체에 포함시킬 수 있다.

大韓赤十字會는 임시정부 내무부의 인가를 얻은 후 회원 모집과 지부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단기간에 미국 L.A의 韓人거주지와 러시아 蘇王營의 韓人 거주지에 지부를 설립하였다.¹²⁾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의 韓人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부가 설립되고, 회원 또한 증가하였다. 大韓赤十字會의 회원에는 韓人은 물론 중국과 기타 국가의 인사들도 포함되었는데, 그들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지하면서 大韓赤十字會 가입을 자원하였다. 1921년 5월 大韓赤十字會는 회원이 2,128명에 달했는데, 그 중 중국인이 70~80명, 미국인도 100여 명 있었다.¹³⁾

大韓赤十字會는 설립 이후 회원 모집과 지부 설립을 제외한 기타 활동도 전개하였다. 예를 들면 1922년 봄 大韓赤十字會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재난을 당한 韓人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¹⁴⁾ 이밖에 大韓赤十字會는 上海에서 韓人의 건강,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방면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上海 韓人들의 진료의 편의를 위해 大韓赤十字會는 의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울러 上海 韓人의 콜레라 예방주사와 무료 진찰을 시행하기도 했다.¹⁵⁾ 장래의 독립전쟁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배양하기 위해 大韓赤十字會는 上海에 간호사 양성소를 설립하였다. 1920년 1월 1일 오후 2시 大韓赤十字會는 上海 韓人僑民團 내에서 간호사 양성소의 개학식을 거행하였다.¹⁶⁾ 간호사 양성소의 커리큘럼은 한국 국내 의과학교 간호학과의 과목을 기초로 하였고, 학습 시간은 3개월, 매주 18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수강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보충하기 위해 양성소는 특별규정으로 중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에

게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학생들은 3개월의 교육을 받은 후 중국 赤十字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韓人 金昌世의 소개로 上海의 각 의원에서 실습할 수 있었다. 이 양성소의 제1기 모집 학생은 남학생 3명, 여학생 10명이었다.¹⁷⁾ 그러나 이 양성소의 이후의 상황은 자료 부족으로 알 수 없다.

비록 그들이 예상했던 독립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간호사 양성소는 上海의 韓人들에게 의학 지식을 보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大韓赤十字會의 활동은 이처럼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韓人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을 주었고, 해외 韓人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大韓赤十字會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주요 韓人 거주지에 지부를 건립할 수 있었다.

III. 韓人社會의 醫院

韓人社會가 형성된 후 大韓僑民團은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여 韓人들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僑民團은 또한 上海의 상황에 근거하여 韓人을 위해 천연두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였다.¹⁸⁾ 韓人의 위생 의식을 높이기 위해 僑民團에서는 유명인사에게 衛生講演을 요청하여 위생 지식을 보급하였다.¹⁹⁾ 아울러 韓人社會의 형성에 따라 韓人 거주지에는 韓人만을 위한 의료기구도 출현하였다. 이들 기구는 대부분이 韓人이 설립한 것이다. 1923년 上海에는 일반 의사 2명, 치과 의사 1명이 있었고,²⁰⁾ 1930년에는 上海의 韓人 의료기구가 6곳에 달하였다.²¹⁾

이처럼 韓人 의료기관이 있었지만 적지 않은 韓人들은 중국인 혹은 기타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의 上海 公共租界工部局年報統計에 의하면 公共租界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韓人은 1928년 11명,²²⁾ 1931년 14명²³⁾이었다. 30년대 중기 이후 上海의 친일 조선인 중에서도 진료소를 설립하고 韓人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 적지 않은 韓人들이 일본거류민단에서 전염병 예방 접종을 받기도 하였다.

11) 「赤十字會宣言」, 『獨立新聞』, 1919년 9월 9일.

12) 「赤十字會美洲支部」, 「赤十字會蘇王營支部」, 『獨立新聞』, 1919년 9월 9일.

13) 「大韓赤十字會의 現狀 및 將來 方策의 大略」, 『獨立新聞』, 1919년 9월 9일.

14) 「韓赤十字會聲明停止救濟中俄境罹災韓民之募捐」, 『時報』, 1923년 12월 4일.

15) 「赤十字會의 活動」, 『獨立新聞』, 1919년 8월 21일.
「赤十字會의 美舉」, 『獨立新聞』, 1919년 11월 11일.

16) 『獨立新聞』, 1920년 1월 31일(廣告).

17) 「赤十字看護員養成所開學」, 『獨立新聞』, 1920년 2월 7일.

18) 公共租界工部局警察報告書, 「過激韓人李溟玉(李光福)」,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21(臨政編 VI), 1992:4.

19) 「民團의 衛生講演」, 『獨立新聞』, 1920년 4월 8일.

「民團 주최의 第2次 衛生講演」, 『獨立新聞』, 1920년 4월 15일.

20) 『木下警視視察復命書』, p.104.

21) 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 필름, 『在上海朝鮮人狀況』, sp.205-206, pp.21036-21044.

22) Annual Report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1928, p.164.

23) Annual Report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1931, p.148.

IV. 참고문헌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편, 『舊韓國外交文書』 8,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0.
2. 臺北中研院近代史研究所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 臺北, 1972.
3. 국사편찬위원회 편, 『尹致昊日記』 1, 탐구당, 1950.
4. 『貿易月報』 13(1909년 7월), 여강출판사 영인, 198?.
5. 日本外務省,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3, 高麗書林影印, 1989.
6. 『三千里』.
7. 『獨立新聞』.
8. 『時報』.
9. 公共租界工部局警察報告書, 「過激韓人李溟玉(李光福)」, 국사편찬위원회, 『韓國獨立運動史』 21(臨政編 VI), 1992.
10. 『木下警視視察復命書』.
11. 국회도서관 소장 마이크로 필름, 『在上海朝鮮人狀況』.
12. Annual Report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1928.
13. Annual Report of the Shanghai Municipal Council, 1931.